

# 韓國과 日本의 대조적인 現物원유도입추이

韓國 : 올들어 급감추세

日本 : 계속 늘어 30%線

**최** 근 세계적인 원유공급과잉과 현물시장의 가격 약세를 배경으로 원유도입에 있어서 현물 원유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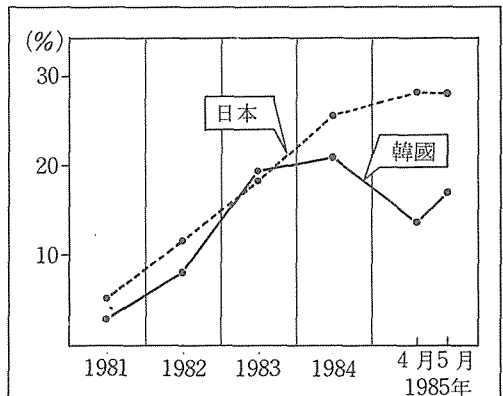
최근 韓國과 日本의 현물원유 도입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원유도입에서 차지하는 현물원유의 비중이 1981년의 2.6%에서 1982년 7.9%, 1983년 19.6%, 1984년 21.9%로 증가하다가 올들어 1~5월중에는 12.3%로 전년동기대비 54.9%가 감소,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전체원유도입에서 차지하는 현물원유의 비중이 1981년의 5.3%에서 1982년 12.0%, 1983년 18.7%, 1984년 26.1%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4, 5월중에는 각각 29.0%, 27.8%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20.2%, 16.5%의 대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日本 석유업계에서는 올해 현물원유의 도입량이 전체도입량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현물원유도입이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日本의 현물원유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제원유가격인하로 공식가격과 현물가격차가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석유업계가 정확한 정보와 막강한 Bargaining Power를 바탕으로 현물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현물시장이란 일반적으로 탱커단위나 그보다 적은 양의 원유를 그 자리에서 현물판매하는 시장으로 국제석유시장에서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원유수입상과 수출상들이 참여

韓國과 日本의 現物원유도입비중 비교



〈資料〉 大韓石油協會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공급이 과잉일 때 현물시장가격은 OPEC (석유수출국기구) 공식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공식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원유공급이 부족하게 될 때 수요자들은 일시적인 과다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정유공장 가동이나 회사운동을 위해 비싼 현물시장 원유라도 구매하려 하기 때문이다. \*

